

21세기형 청정 지장기도도량 보금산에 자리잡아

경기 여주 백화사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여주 보금산 한가운데 현대인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편히 가라앉히기 위한 '초현대식 도량'이 들어서고 있다. 청정수월 지장기도도량 백화사(주지 정왜).

백화사의 특징은 '21세기형' 도량을 지향했다는 것. 한국 전통사찰이 목재를 주로 이용한 목조건물이라면 백화사 대웅전은 마치 파리의 유명 오페라하우스처럼 천연 화강암이 사용돼 지어진 석조건물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백화사의 대웅전이 보금산 종턱에 우뚝 서, 자신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바쁜 삶은 사는 현대인들을 반갑게 맞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한 번씩 찾아



지장전 앞에 위치한 부도탑.



육지장 보살상이 우뚝 서 있다.



백화사 대웅보전 법당.

와 하룻밤을 묵으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불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2대에 이은 신심 창건 동력

첫눈에도 어느 보통사찰과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백화사가 창건된 것은 특별한 인연을 만났기 때문이다. 주지 정왜 스님은 그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는다.

"송광사 등 제방선원을 돌며 수행에 전념하던 수좌인 제가 8년 전 우연히 불교방송 라디오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 때 신심 깊은 70대 거사님이 방송을 듣고 자주 만나기를 청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사는 스님에게 시주를 할 테니 사찰 하나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 한참 선원에서 수행을 하던 정왜 스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러니 하고 거사의 제안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연을 다한 거사는 세상을 떠났다.

"조금 지나서 거사의 아드님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친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사찰을 건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사는 '첫째 대웅전 외부를 파리 오페라극장 같이 지어 달라' '둘째 명부전을 건립해 3만 지장보살을 모셔달라' '부도탑을 세워 자신의 직계가 족 유골을 봉안해 달라'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왜 스님은 거사와 아들의 신심에 크게



천연 화강암을 사용해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 형식의 대웅보전.

3만 지장보살 봉안 계획...주말수행 인기 지장전 천장 티베트 만다라 화려하게 장엄

감동했고 그 자리에서 불사를 맡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3년 동안 스님은 전국을 누비며 적당한 사찰부지를 찾았다. 그러다가 현위치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 2리에서 연화지 형상의 명당을 발견하고, 2003년 6월 잣나무 백(柏) 꽃 화환란 이름을 짓고 공사의 첫 삽을 떴다. 공사 책임도 거사의 아들이 맡았다. 대웅전과 지장전 요사채 수행관

등이 잇달아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석조 대웅전, 불자들 발길 붙잡아

대웅보전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대웅전의 첫 인상은 웅장함 그 자체. 100평이 넘는 넓은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님이 기도객을 맞는다. 담집도 정성을 다해 장엄하면서도 한층 멋을 내 여법하게 조성됐다. 특히 법당 천장은 티베트 만다라의 꽃이 활짝 폈다. 누구든 들어서는 순간 웃음을 머미게 된다.

대웅보전 우측에는 전통양식의 요사채가 건립돼 있다. 바로 밑으로는 13개의 방사를 갖춰 50여명이 동시에 머물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수행시설이 들어서 있다.

대웅보전 좌측 산자락에는 지장전이 건립돼 있다. 이 안에는 시주자의 당부에 따라 3만 지장보살들이 봉안되고 있다. 지장전 천장에도 티베트 만다라가 화려하게 장엄돼 있다.

백화사의 불사는 아직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장전 우측 언덕에는 동양최대의 아미타 부처님이 조성되며 그에 앞서 육지장보살상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 지장전 앞마당에는 시주자와 직계가족의 부도탑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는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아낌없이 시주한 신도의 보시공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일반인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정왜 스님은 백화사를 주말 산사체험과 명상수

련회를 통해 '참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개발할 계획이다.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타종교인도 사찰을 찾아 다이어트 수련회, 요가, 명상 등을 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송광사 등지에서 수행회 법사로 활동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매주 1회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금강경>을 비롯해 <선가귀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백화사는 여주의 문화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백화사 주변에는 온가족들이 함께 현장체험을 할 수는 목야박물관과 여성생활사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정왜 스님 이런 입지조건을 백프로 이용, 여주의 각종 관광산업인 골프장, 도자기엑스포 등과 연계해 백화사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 유적인 고달사지와 온천도 인근에 있어 1박 2일 여행코스도 적당하다.

또한 정왜 스님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어린이 한문교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사찰과 지역민들이 어우러지는 중심도량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왜 스님은 "백화사 창건 불사를 통해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함께 나누며 신도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불사가 진행중인 지장전.

찾아오는 길 여주IC에서 10분을 여주 쪽으로 달리면 강천면 '케슬파인 골프장'이 보인다. 그 길을 바로 넘어면 좌측으로 보금산 산언저리에 도착하고 좌측 길을 오르면 거대한 석축을 층층이 쌓아 불사를 하고 있는 백화사에 이른다.

(031)886-0435-6



영원한 유골 안식처 '그린함'

진공처리로 부패·악취·벌레 안생겨

'그린함'은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함이다. 기존의 봉안함에 결로현상 때문에 유골이 썩거나 악취를 풍기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그린함은 진공한 다음 실리콘 팩으로 입구를 봉안하고 질소를 충전해 유골의 부패와 악취를 영구히 막을 수 있는 내함과 도자기를 구워 만든 외함으로 구성됐다. 외함은 영구히 녹이 썩지 않는 알루미늄과 규소의 특수성분으로 만들어진 도색을 했다.

양방향 체크밸브를 사용해 진공과정과 질소충전을 하나의 밸브로 처리했다. 세라믹 필터는 진공시 유골반출을 막고 원적외선을 방출해 내부신선도를 유지한다.

그린함이 개발된 이유는 평생 모은 재산을 시주한 신도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서다. 정왜 스님은 시주자의 유골을 영구히 부도탑에 봉안할 수 있도록 전문한 개발업체에 의뢰해 '그린함'을 제작, 실용신안등록과 의장등록을 마쳤다.

화장술이 이미 60%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지만, 유골의 부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 기존 시설들은 냉온풍기, 습도조절기, 환풍기 등 장비를 이용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완벽한 밀폐로 산화와 결로현상과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봉안함이 가진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했다. 그린함은 유골을 가정에서 모실 수 있을 만큼 정결함과 외형의 세련됨을 갖추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말사 백화사

전화 : 031-886-0436 Fax 031-886-0437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 2리 1165-2

제품문의

(주) 뉴그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0-4

전화 : 031-416-2088 Fax 031-407-9444

인터뷰 / 백화사 주지 정왜 스님

"삶에 지친 이들 참나 찾는 도량"

"2대의 결전 불심으로 세워진 청정도량에서 세상 번뇌를 깨끗이 정리하고 참나를 찾는 불연을 얻기 바랍니다."

8년 전 한 신심 깊은 불자와 맺은 인연으로 경기도 여주에 수월청정 지장기도도량 '백화사'를 창건하게 됐다는 정왜 스님(사진). 스님은 최근 육지장보살 조성불사를 마치고 영탑 조성과 3만 지장보살 봉안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님은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 편한 법복 차림으로 이곳저곳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행려한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수좌다.

정왜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기 위해 출가했는데 인연을 만나 이렇게 거대한 불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절실 노구로 서원을 한 거사와 그의 아들의 효심에 보답하게 위해 최선을 다해 백화사 불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부자의 불심에 감동을 받은 정왜 스님은 3년 넘게 전국을 돌며 사찰 부지를 찾았고 마침내 2003년 여주 강천면 도전 2리 2만평의 부지가 눈에 들



어왔다고 한다. "눈이 녹은 자리가 있어서 보니 대웅전이 있을 곳이란 느낌이 확연하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대웅보전 자리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스님의 노고에 감탄하며 분묘 이장비반 받고 2만 평을 보시해 주었다. "당시 시세로 10억이 넘는 땅이었는데 선뜻 보시를 해주는 것을 보니 더욱 영험한 도량이 되

리라는 감이 왔습니다."

정왜 스님은 이곳을 여주권을 대표하는 핵심도량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장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주5일 근무제에 부응하는 주말 수행법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정왜 스님은 "백화사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감로수 같은 기쁨을 주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풍경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수행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하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